사 설

승단 개혁 바라는 까닭

출가 승단은 재가 신도들을 이끌어 가는 구심점이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현실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은 불교가 현실에 역동적으로 기능하는 종교로 있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오히려 출가 승단이 전근대적인 모순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으며, 모범이 되기보다는 개혁이 필요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우리 불교의 실정이 아닌가 싶다.

그러하기에 승단 개혁이야말로 불교의 중흥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도 핵심적인 일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한편 승단 개혁은 가능한 한 그 자체 안에서의 움직임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조계종 출가 승단은 너무나도 절박하게 다가와 있는 자체적인 정화와 개혁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숱한 내부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은 위상의 실추와 공동체 내부의 기강 붕괴, 지지부진한 개혁에 기다리기 지친 재가 불자들의 승단과 관련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심상찮은 움직임. 이런 것들은 모두 조계종 출가 승단이 이제는 개혁을 더 미룰 수 없는 벼랑에 서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에 실시된 조계종 본말사 주지연수 과정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는 승단 자체 내에서의 개혁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스님들이 승단을 청정 수행 공동체로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청정성과 자질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는 재가단체나 언론 등에서 제기한 개혁에의 요구와 같은 인식과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설문에 응한 대상들이야말로 바로 승단을, 그리고 불교를 바로 세워 나아갈 중심에 있는 세력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의식이 현실화되어 종단 개혁의 힘찬 발걸음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당위적인 인식을 현실화시키는데는 사제계급으로서의 권위에 편안히 안주하고자 하는 출가 승단의 타성적인 보수성이 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권위란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는 자체 정화가 있을 때에만 지켜진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지 않으면 몸 전체를 잃는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설문 조사에서 드러난 개혁에의 지향성을 현실화시키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일으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

경주 남산의 유산 가치

경주 남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유네스코 조사관이 등록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경주 남산 등 '경주 역사유적 지구'를 둘러보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호주 케인즈에서 열리는 제24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총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고 한다.

이번에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 답사한 경주 역사유적 지구는 남산과 황룡사, 월성, 대릉원 산성 등 5개 지구다. 이 가운데 특히 남산지구는 신라 민중들의 숨결과 손길이 그 어느 곳보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이다.

경주 남산은 단순히 불교라는 한 종교의 문화재가 남아 있는 구역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조상들의 슬기가 스며있는 우리 민족의 자산이며, 이제는 더 나아가 곧 세계 인류의 소중한 재산이 될 터이다. 조사관이 문화재 정비가 잘 돼 있다고 평가했다고 하니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역사유적의 보존관리는 아직 미숙한 부분이 적지 않다. 어설프게 손을 대 문화유산의 원형을 변질시키는가 하면 아예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아직도 허다하다.

차제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경주 남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경주 남산은 노천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역사 유적인 만큼 원형을 보존할 최선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되 특히 세계문화유산 지정 이후 빚어질지 모르는 광신적 이교도 등에 의한 원형의 훼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남산을 보존하고 조사 연구하기 위한 상설 연구기관을 두되 반드시 스님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관청이나 관변단체에서 불교전문가의 참여없이 진행된 연구나 발표한 불교관련 자료를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할 때가 적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주변환경 정비와 안내판 설치, 홍보 등에도 보다 세심하고 주도면밀한 대책을 펴 문화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주시와 문화재청은 이상의 지적을 유념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길 거듭 당부한다.

열린마당

폐사지 관리

조계종 문화부에서 전국 2천여 곳의 폐사지를 문헌 조사한 〈불교사원지〉를 발간하는 등 폐사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문화재 전문가들은 폐사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폐사지 사역 등 문화재보호구역의 조정을 간소화 했고, 문화재청이 최근 실시한 '국민의 문화재 인식도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70% 이상이 '보호구역 확대'를 원하고 있어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에서는 폐사지 관리를 도맡을 주체를 놓고 '종단' '본사급 사찰' 등의 의견을 나오고 있다. 폐사지 관리의 중요성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편집자〉

"실태조사 선결과제"

김상영〈중앙승가대 사학과 교수〉

전국에 산재하는 폐사지는 국유, 사유, 그리고 일부 불교종단 소유 폐사지 등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합치면 폐사지의 정비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성격을 띤다. 당장 가치가 높은 사지의 토지 매입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폐사지의 정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국의 폐사지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일이 시급하다. 최근 조계종단에서 일부 조사자료가 발간되긴 했지만 이것은 현장이 무시된 문헌적 조사에 불과한 성과물이다. 이 같은 조사가 완결된 이후에야 그 실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오히려 불교계가 나서서 이들 폐사지에 대한 종합적 조사를 정부에 촉구할 시점이다. 폐사지에 우리 문화의 중요한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를 더 이상 방치시키지 말라는 내용을 촉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때이다.

미래사회와 문화의 깊은 상관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우리 정부도 문화부문 예산을 증액시키는 등의 적극적 문화 정책을 표방하고 나섰다. 이같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불교계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아쉽게도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 전통문화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문화의 침체는 곧 한국문화의 침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불교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보호구역으로 지정"

정재훈〈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위원〉

전국의 모든 폐사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보존해야 한다. 폐사지는 고대 불교사를 이해할 수 있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교계에서는 이 역사의 고리를 보존하는데 노력하지 않았다. 건설 장비로 훼손·멸실된 폐사지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폐사지 보존을 위해서는 폐사지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아야 한다.

최근 조계종에서 조사한 북한산성 내 폐사지 20여 곳 가운데 수 곳은 '개인 사유지'로 밝혀졌다. 이 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예천 개심사지, 서산 보원사지, 경주 남산리사지 등과 같이 정작 소유권 때문에 교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폐사지들이 수없이 나올 것이다.

불교계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우선 본사급 사찰의 노력이 절실하다. 폐사지에 대한 보호구역을 확대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친밀한 본사급 사찰에서 나서야 한다.

우선 교구내 폐사지를 조사하고, 그 중요도를 선별해 연차 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그리고 폐사지에 방치되어 있는 건물 터나 탑부재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해 사지의 성격과 역사를 규명하고 '사지 지정'과 같은 후속 절차도 밟아야 한다. 대부분의 폐사지들은 야산에 묻혀있고 혹은 민가의 농토로 경작되고 있어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

"종단차원 토지매입"

한성욱〈송광사성보박물관 학예연구관〉

화순의 공림사지나 장흥의 금장사지는 조선 태종 대에 자복사(資福寺)로 지정될 만큼 격을 갖춘 사찰이다. 그런데 이들 사지에 대해 지표조사나 발굴 등과 같은 학술적인 접근 이외에는 어떠한 접근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폐사지가 들어선 땅을 민가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사지의 토지소유권이 불교계에 있다면 폐사지는 물론 이곳에서 발견·발굴된 문화재를 보호하고 또 정밀조사를 토대로 복원해 새로운 신앙처로 삼을 수도 있다.

본사급 사찰에 세워진 성보박물관에서는 이들 폐사지에 관심을 쏟고 있지만, 관심 이외엔 별다른 자구책을 마련할 수 없다. 재정이 부족해 민가에 귀속된 폐사지를 매입하는 것은 고사하고 조사·시굴할 인력을 구할 수도 없다. 또 발굴된 유물을 보관할 적당한 장소도 없다. 종단은 민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폐사지를 매입하고 조사·발굴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폐사지 토지 매입을 놓고 '종단' 혹은 '본사급 사찰' 등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종헌종법에 따라 사찰의 모든 재산은 종단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조계종 산하 불교문화재 발굴조사단이 이 일에 적임자이다. 이 조사단은 전국 지역에서 중요 폐사지를 선별해 토지 소유자를 파악하고 매입해야 하다. 중요 폐사지 선정은 자칫 지역 이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발굴조사단은 종단의 기구인 만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물론 폐사지 인근 사찰들은 폐사지의 훼손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목탁소리

相 내는 봉사

한 명 우 〈취재 1부 기자〉

지난 14일 아침 일찍 한 스님으로부터 기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설날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떡국을 보시했는데 그 내용이 신문에 실리지 않았다는 반 항의성 전화였다. 더욱이 받아 적으로라고 요구까지 하고는 자상히도(?) 인물 동정란에 실리는 형식에 맞게 그 내용을 그대로 불러 주는 것이었다. 이 스님은 법명만 대면 교계의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큰 복지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님이다.

이튿날에는 한 보살로부터 격앙된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연말에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하는데 거기에 왜 자신들과 같은 자원봉사자들은 소외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하는 시상이니 당연히 종단 차원의 일인데 수상 대상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까지 했다. 기자가 그 상이 조계종 복지재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의 사기진작을 위한 내부 행사라고 설명해 주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 신문사에는 이같은 항의성 요구가 빈번하다. 가끔은 일리 있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거나, 어떤 사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서 비롯되는 오해가 많다.

기자가 받은 두 통의 전화도 그런 것이었다. 사소한 문제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불우한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더욱이 '하심(下心)'을 중요시 여기는 부처님 법을 따르겠다는 불자들에겐 어울리지 않는다.

봉사는 일종의 보시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내지 않는 보시야말로 언설(言說)로 다할 수 없는 진정한 자비행이 될 수 있다. 스스로 발심해서 스스로 행하는 자기수행의 방편이기도 하다. 그래서 보시를 일컬어 '일체중생을 위하는 가장 수승한 선심(善心)'이라고 한다.

〈증일아함경〉에 "보시하되 그 과보를 바라지 말고, 보시하여 열반을 얻을 것이지 천상에 나기를 바라지 말라"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독자 詩

무소의 뿔

김혜명

빈 터에 부는 바람
미련이 날고
가슴 밑에 고인 도피의 끝
자락
다시 눈을 들어 방황한다

오늘은 미래가 되고
묵은 빗장이 열리고
나는 네가 되었다

안주를 놓고
번민을 놓고
버림도 취함도
놓음도 놓는다

나만 있다. 오롯이…

끔찍은 세상
무소의 뿔처럼
그저 나여야만 하지
그래야 세상이 되고 평정
이 되지

지혜의 연꽃
가슴에 피우고
흙이 되고 바람이 된다
자유하기 위해
나는 무소의 뿔이 된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

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케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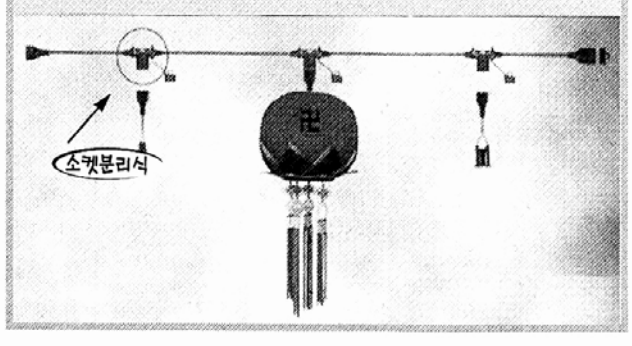
봉축행사 사찰연등 법당기도등용 불제 T형 전선(케이블)

사용용도
사찰연등용 · 옥외행사용

규 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주문
· 모델 : DW-101, DW-100F (고리용)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 확보
· KS전선사용
· 감전,화재사고를 예방
· 설치 ·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사히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

불제 연등용 전선(케이블)



전 등 배 선
· 일일이 피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 이런 사소한 배선에서도 단선, 누전, 합선, 단락, 과열 등에 의해 감전사고나 화재사고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 전기는 소리도, 냉새도, 보이지도 않고, 예고도 없습니다.
· 단지 충분한 지식의 이해와 점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입 문의 본사 영업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080-5826-236
A/S : (032)583-4023
FAX : (032)571-9470

卍 대원기업

사찰용, 연등용 전구 3W~5W도 납품합니다.
(고추전구, 인지전구)
■ 인터넷: http//:www.bulje.co.kr

사찰 전기화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시다. 4·8 봉축 이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